

리강, 제 7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참석해 기조연설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앞줄 좌3)은 상해에서 제 7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홍콩국제경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개막식후 리강은 회의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과 함께 전시관을 돌아보았다. / 신화넷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상해에서 제 7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홍콩 국제경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이 개방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정중한 약속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박람회는 해마다 개최되었고 종래로 중단된 적이 없다. 만약 제 1 회 박람회가 중국이 세계에 보낸 일방적인 초청이라면 그후 매회 박람회는 중국과 세계의 공동한 약속이고 개방과 협력에 대한 모두의 공동의 념원을 반영한다. 오늘날 세계는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역급로별

화 사조가 머리를 들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뚜렷이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평화와 발전 사업이 직면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증가되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개방을 견지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개방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추진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개방 공감대를 더욱 잘 집시켜야 한다. 각측은 공동으로 국제경제무역 질서 규칙을 준수하고 여러 다자간 경제무역 협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 제도형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적극 접목하며 자유무역시험구 승격 전략을 깊이 실시할 것이다. 둘째, 호혜상생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개방 공간을 더욱 잘 넓혀야 한다. 각측은 서로 성취하는 흥금을 견지하고 더욱 긴밀한 시장과 자원의 접촉을 통해 혁신협력이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새로운 발전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은 일방적인 개방 조치를 실시하여 최빈국의 100% 세목 제품에 평관세 대우를 실시하는 등 조치로 초대 규모 시장을 일층 개방하며 수입박람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등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잘 개최하여 진정으로 중국의 대시장을 세계의 큰 기회로

만들 것이다. 셋째, 운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개방 사명을 더욱 잘 짊어져야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발전도상국이 글로벌화의 배당금을 더욱 잘 공유하도록 지원하며 각측과 함께 국제경제기구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계속 밀접히 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투자 편리화 협정' 등 성과를 출산적으로 모색, 실시하며 손잡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할 용의가 있다. 중국 경제의 량호한 기본 면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국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호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발전을 추진하며 인류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욱 큰 힘을 이바지할 능력이 있다.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우즈베키스탄 총리 아리포프, 가자흐스탄 총리 백테노프, 몽골국 총리 오운엘덴, 세르비아 총리 부체비치 등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 이베라,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비서장 그리스판이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152 개 나라, 지역과 국제기구 지도자 및 정계, 상업계, 학계 대표 약 1,500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외국 지도자와 국제기구 책임자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수입 박람회는 이미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개방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국제 플랫폼으로 되었으며 중국의 개방 포용과 대국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각측은 중국 경제 및 발전 전망을 좋게 보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경제무역, 상호 연결과 소통, 녹색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등한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 개막식에 앞서 리강은 기업 전시를 참관했다. 개막식후 리강은 회의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과 함께 전시관을 돌아보았다. 진길녕, 오정룡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다. / 신화넷

[국제시평]

외자기업이 본 수입박람회의 '새로운' 변신



11월 6일, 수입박람회 기술장비전시구역의 한 부스에서 사업업군이 최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신화넷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은 우리를 더욱 분발하게 한다.” 5일, 제 7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에서 미국 화이자(輝瑞) 바이오제약 그룹 중국지역 사장 장 - 크리스토프 프앵토, 로레알(歐萊雅) 그룹 회장 장 폴 아공 등 여러 외국기업 책임자들은 박람회가 해마다 예정대로 열려 세계가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데 ‘강심제’를 주입하고 중국에 대한 신심을 증강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제 7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6 일간의 일정으로 상

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52 개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지도자, 정계와 상공계, 학계 대표 약 1,500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또 129 개 국가와 지역의 3,496 개 업체가 참가하여 국가별(지역) 수와 기업수가 모두 수입박람회 최고를 기록했고 참가한 세계 500 대 기업과 업계 선두기업이 297 개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체 전시는 36 만여평방미터의 초대 규모를 계속 유지했는데 그중 186 개 기업과 기구가 7년 연속 참가했다. 이런 수치는 중국 시장 및 박람회의 ‘흡인력’을 증명했고 개방협력, 호혜

상생하려는 각측의 공동 소망도 보여 주었다. 수입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국가급 박람회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로 보면 전 6 회 박람회에서는 약 2,500 개의 대표적인 신제품,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공개되고 의향 거래액이 4,200 억달러를 초과해 다국적 기업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 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특수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해에 박람회가 예정대로 열리면서 세계에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다수의 외자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큰 시장이다. 네슬레(雀巢) 대중화구 고급부총재 방순도는 “중국은 훌륭한 외국투자자들의 창업 속도”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련이어 증량정책을 내놓으며 내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수입박람회의 ‘개년생’인 미돈리(美敦力)의 글로벌 수석부총재 겸 중화권 총재 고우소는 “수입박람회라는 열린 창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 시장의 무한한 기회를 느꼈고 각계와의 좋은 협력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신질생산력 개발 가속화는 박람회에 더 많은 ‘새로운’의미를 부여했다. 보스턴과학회사 중화권 총재 장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혁신에 대한 중국 시장의 열정과 열망을 더욱 확고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람회는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소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당사자의 협력과 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의 공동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보호주의의 역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박람회는 1 회부터 부스 설치, 전시품 운송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참가에 편의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발전도상국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과정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가 각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다 공평하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 국제방송

하반기 군대 군(경찰)관 직접 선발모집 사업 본격화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새시대 강군사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 일선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는 2024년 하반기 군대 군(경찰)관 직접 선발모집 사업을 포착했다. 군대 관련 정책에 따라 직접 선발 모집 대상은 주로 ‘쌍일류’ 건설 대학 및 건설 학과의 리과, 공과 본기 졸업생중에서 선발하며 군대 건설에 시급히 부족한 전공은 ‘쌍일류’ 본과는 1차 모집에 속하는 대학교 본기 졸업생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당히 선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800 여개 군(경찰)관 일자리를 내놓고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응시자들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군대인재넷’(http://81rc.81.cn 또는 http://www.81rc.mil.cn)을 통해 구체적인 모집 일자리와 표준 조건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후속 군대 관련 단위는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 정치심사, 고찰선발, 전문심사평가 등 사업을 조직, 전개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모집의 질을 확보한다. / 신화넷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 미국 국민 선택 존중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이 이미 발표됐다.”며 중국측의 논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트럼프, 대통령 선거서 이겨

공화당 상원 장악



트럼프가 현지시간으로 6일 새벽, 플로리다주 팜비치(棕櫚灘) 회의중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중앙텔레비전방송넷

6일, 미국 여러 매체의 추산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인단은 이미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초과했다. 또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의 최소 52석을 장악, 과반수를 초과해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 신화넷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새벽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538표중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얻는 후보가 승리한다. / 신화넷

일본, 11월 11일 수상 지명 선거

5일에 있는 중의원 협상회의에서 일본 내각 관방장관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11일에 특별국회를 소집해 수상 지명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는 이날 중의원 집권당과 야당 각 당과 대표 협상회의에 참석하여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11일에 특별국회를 열어 수상 지명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집권당측은 이번 회의 기간을 4일로 정하고 14일까지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후 30일내에 반드시 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때 가서 현임 이시

바내각은 집단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새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중의원 참의원이 차기 수상을 지명하게 된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연합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기에 수상 지명 선거 첫번째 투표에서 바로 승부를 가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때 가서 현임 수상 이시바 시게루와 제 1 야당 립헌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는 두번째 투표에 진입하게 되며 최다 득표자가 신임 수상으로 된다. / 신화넷

소니(중국) 부총재 : 중국 오락 시장 잠재력 커

“오늘날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로 세계시장과 깊이 융합되었다.” 소니(중국) 부총재 소에다 다케히토는 “중국이 여러 조치로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니의 일련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오락의 융합, 새로운 산업 발전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에다는 소니그룹의 사업은 영화, 음악, 게임, 전자제품, 센서(传感器), 금융 등 6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금융외 모든 분야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니는 1978년 중국 진출 이후 현지화, 다문화, 혁신 발전의 세 단계

를 거쳤다. 소니(중국)는 중국 고품질 발전의 시대적 기회 및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니 게임팀은 2016년 중국에서 중국 창작자들의 게임 개발 지원 및 중국 창작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의 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8년간 20여개의 우수 게임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소에다는 “중국 창작자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해 세대에 중국 사회·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신화넷